

# 변화하는 시대, 사라지는 일자리

박서현

(서론)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자리와 일상생활, 많은 부분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인 인공지능(AI)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 구조, 운전과 같은 실질적인 작업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뺏고 있다. 공장에서의 단순 노동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다 존재한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본론)

1.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간의 노동보다 저렴하다.

1-1. 인공지능은 기본적 고정지출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일정한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생명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대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은 고정지출이 적다.

1-2. 인간은 평균적으로 성인기준 7~9시간 수면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나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휴식, 수면이 필수적이다. 이에 비해 인공지능 로봇은 전기만 있다면 휴식이나 수면이 필요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효율성과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2.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간의 노동보다 월등히 빠르다.

2-1. 인간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나 연산, 업무처리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이에 비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인간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실수나 속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2. 프로그램으로 된 기계를 사람이 이길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숙련자라고 해도 기계의 정확도와 빠르기에 미치지 못한다. 계산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예술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암산이 빠른 인간이라 해도 1초도 채 걸리지 않고 실수조차 하지 않는 기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자르려면 반나절 걸리는 부품이라도 기계는 오차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를 수 있다. 인간은 프로그램을 이길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급여 부분과 기계가 못하는 일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1. 먼저 무조건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간의 노동보다 저렴하다 라는 의견은 옳지 않다. 인간의 급여보다 기계의 초기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기계는 중간에 수리만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인간은 수당, 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에 비해 기계는 초기비용과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고정지출이 적다. 또한 인간은 반영구적이지 못하다. 일을 그만 두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며,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휴식이 필수인 존재이기 때문에 밤 낮 내내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을 더 써야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계는 도중에 그만 둘 일이 없고, 밤 낮 상관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효율적이고 지출이 적어 지기 때문에 인간의 급여보다 기계의 초기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은 옳지 못하다.

2. 다음으로 기계가 못하는 일이 있다 라는 주장이다. 과일농사를 예로 들면 기계가 모든 과일 하나하나 다 인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과일을 버리게 될 수도 있고 상한 과일을 판매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계, 로봇의 진화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된다. 과일을 다 채집한 후 스캐너에 넣어 기계를 작동시키면 된다. 인간 또한 완벽할 순 없다. 인간도 모든 과일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결론)

필자는 무조건적으로 인공지능이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 노동 일자리가 인간의 몫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다른 직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中 “시대적 변화의 속도를 늦추면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대신할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급진적으로 발전한다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을 수 있지만, 시대적 변화의 속도를 늦춘다면, 인간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인간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또한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곳에서는 인공지능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선 인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같이 더 나은,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서 한

단계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2장 일